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5월 22일

제07-25호

##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3주년 평가

김 흥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이철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 주요 내용

- ▣ 중·동구 8개국과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신규회원국 10개국은 2007년 5월 1일로 EU 가입 3주년을 맞이하였음. 이에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전후 경제 변화를 점검하고 가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함.

  - 또한 한·미 FTA 협상을 막 타결하고 EU와 FTA 협상을 개시한 현 시점에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의 EU 가입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을 전후하여 교역 활성화, 고용 증대 및 FDI 유입 증가 등으로 경제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을 전후로 기존 EU 회원국의 소득수준에 빠르게 수렴하고 있고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도 선진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짐.
- ▣ EU 가입 과정에서 중·동구 국가가 보여준 경제자유화의 경험은 한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EU 가입 협상에서 적용된 제도적 수렴 기준은 한국의 FTA가 포괄적인 FTA로 나아가야 당초 지향하는 경제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둘째, 가입 과정에서 확보된 거대시장 접근성의 강화와 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의 개선은 투자, 특히 제3국 투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셋째, 체크의 서비스산업 자유화가 성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 개방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 개요

-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중·동구 8개국과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10개국의 EU 신규회원국(New Member States: NMS)은 2007년 5월 1일로 EU 가입 만 3년을 맞이 하였음.<sup>1)</sup>
  -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을 계기로 자국 경제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실제로 가입을 전후하여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거대 EU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규회원국들은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비즈니스 위험이 감소한 것은 물론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을 누림.
  - 신규회원국들이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였던 FDI 유입 급증과 교역증대 등과 같은 편익들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임.
- 비엔나국제경제연구소(WIIW)는 2004년 EU 확대를 앞두고 폴란드, 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부 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이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EU15의 평균에 수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전망한 바 있음.<sup>2)</sup>
  - 위 5개국의 1인당 GDP 증가가 매년 3%를 기록할 경우, EU15의 75% 수준까지는 50년, 100% 수준까지는 8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보다 낙관적으로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을 4% 또는 5%로 상정하는 경우, EU15의 75% 수준까지 수렴하는 데 각각 27년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EU 가입 후 신규회원국의 경제가 위 전망과 비슷한 속도로 EU15의 수준에 수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나, 대부분의 신규회원국들이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신규회원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중·동구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연안 2개국을 합하여 총 10개국임.

2) WIIW(2003), "EU membership and income level convergence: the Experience of the Cohesion Countries," *Monthly Report*, 2003/4.

- 2000년대 초 구조조정의 여파로 저성장을 경험한 폴란드와 체코는 EU 가입 이후 4~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헝가리도 3~5%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최근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폴란드의 서비스부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35% 정도에 머물렀으나 최근 64%에 이르고 있으며, 헝가리와 체코도 1990년대 중반 각각 64%와 22%에서 최근 69%와 47%로 서비스부문 비중이 크게 확대됨.
- 대부분의 신규회원국에서 무역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역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FDI 유입도 확대되고 있음.
- 높은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나 심화되어 있던 EU 역내교역 비중은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체코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짐.
- 민영화에 의한 FDI 유입은 잠시 주춤한 가운데 신규투자 및 재투자를 중심으로 FDI 유입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짐.
- 이와 같이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3주년을 맞이하여 가입 전후의 경제 변화를 점검하고 가입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회원국의 향후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2007년 1월 1일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후발 신규회원국의 향후 경제 변화 추이에 대해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미 FTA 협상을 막 타결하고 EU와 FTA 협상을 개시한 현 시점에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의 EU 가입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 2. EU 가입 이후 경제 변화

-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중·동구 8개 신규회원국은 2006년 7.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음.<sup>3)</sup>

3)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10개국 가운데 키프로스 및 몰타를 제외한 중·동구 8개국(NMS)이 주요 분석대상임.

- 이 국가들은 EU 가입 협상이 시작된 1997년 무렵부터 제도의 선진화를 빠르게 추진하였으며,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음.
- EU 가입 과정에서 확립된 선진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신규회원국의 경제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선진경제 제도의 구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하였음.
- 1980년대 말 시작된 중·동구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EU 시장 편입이 궁극적인 목표였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개혁과 개방은 EU 가입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추진되었음.
- 체제전환기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혼란을 겪은 뒤 1990년대 후반부터 EU와 가입 협상을 시작하면서 신규회원국 경제는 안정을 찾았으며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도약기에 접어들.
- 따라서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에 따른 경제 변화는 2004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기보다는 EU 가입을 준비한 기간부터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 변화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가. 고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

- 중·동구 신규회원국은 EU 가입을 전후하여 경제구조가 선진화되었으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함.
- 2001년 이후 신규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기존 EU15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신규회원국이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 첫째, 체제전환국들이 시행한 민영화의 결과 서유럽 기업들이 지분 참여와 신규투자를 통해 많은 자본을 중·동구 국가에 투자함.
- 둘째, 양 지역간 교역의 증대는 서유럽 제품의 중·동구 시장 진출과 서유럽 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내무역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셋째,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인적 교류, 학문적 교류와 노동 이동에 의한 경제 관계의 강화가 진행됨.

표 1. 신규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추이(2001~0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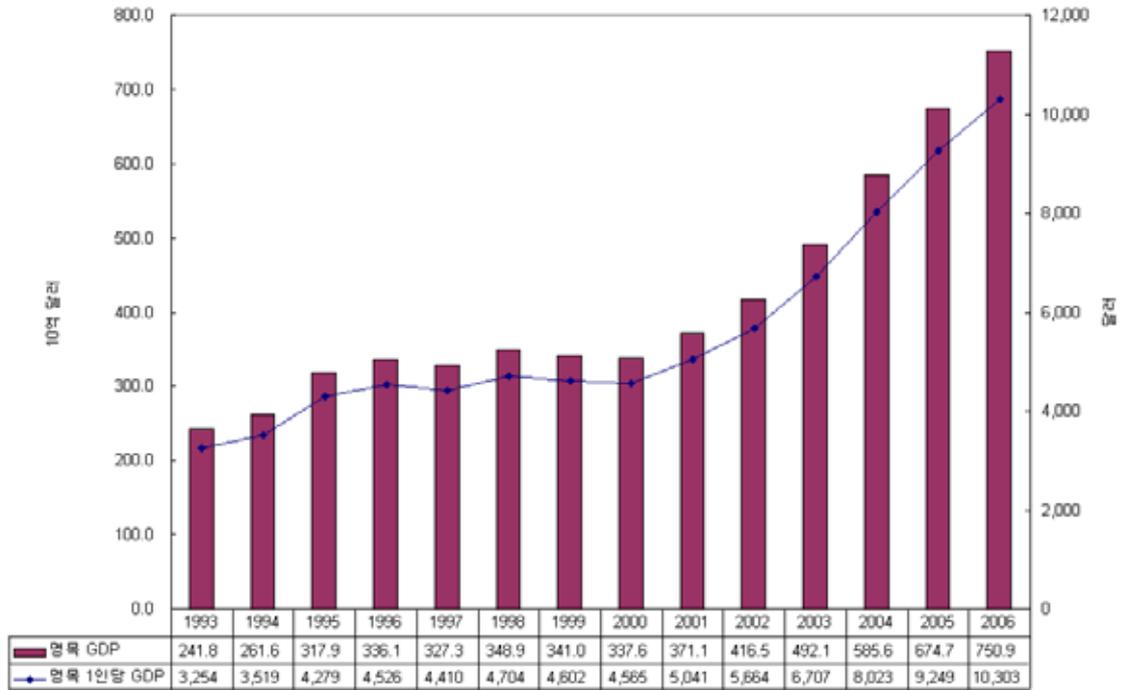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폴란드	1.1	1.4	3.8	5.3	3.5	5.6
헝가리	4.3	3.8	3.4	5.2	4.1	3.9
체코	2.5	1.9	3.6	4.2	6.1	6.0
슬로바키아	3.2	4.1	4.2	5.4	6.0	7.5
루마니아	5.7	5.0	4.9	8.3	4.1	7.8
불가리아	4.1	4.9	4.5	5.7	5.5	5.5
슬로베니아	2.7	3.5	2.7	4.4	4.0	4.9
키프로스	4.1	2.1	1.9	3.9	3.8	3.7
몰타	-1.1	1.9	-2.3	0.8	2.2	2.7
에스토니아	7.7	8.0	7.1	8.1	10.5	11.2
라트비아	8.0	6.5	7.2	8.6	10.2	11.6
리투아니아	6.6	6.9	10.3	7.3	7.6	7.4
EU15(평균)	1.9	1.1	1.1	2.3	1.5	2.7

주: 단위는 전년대비 실질 GDP 증가율임.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 이와 같은 고성장에 힘입어 중·동구 신규회원국(NMS)의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1인당 GDP 수준도 크게 향상됨.
- NMS의 GDP는 2001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7,509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체제전환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93년에 비하면 3배 이상 규모가 확대된 것임.
- 1993년 3,254달러에 불과했던 NMS의 평균 1인당 GDP는 2001년 5천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6년에는 1만 달러를 돌파함.

그림 1. 중·동구 신규회원국 8개국의 명목 GDP 및 명목 1인당 GDP 추이

(단위: 10억 달러,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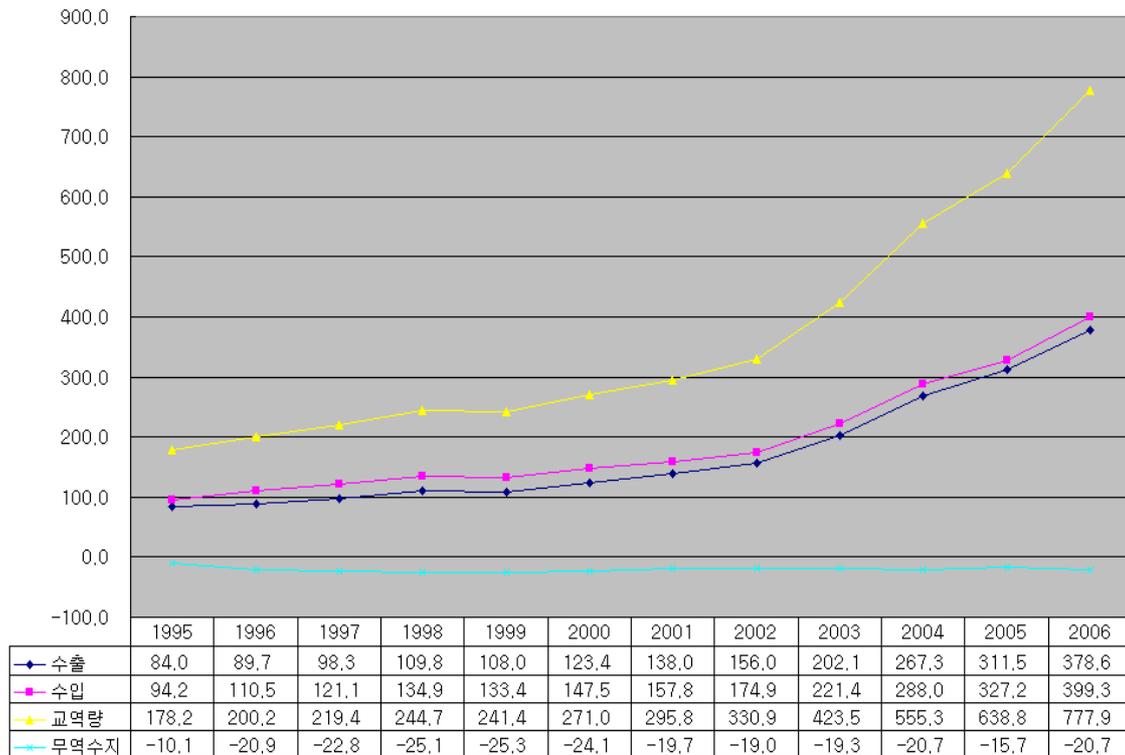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데이터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나. 교역 활성화

-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가 최근 NMS 경제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규모 확대 및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교역규모 확대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짐.
- NMS의 EU 가입은 2004년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2000년대 초반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EU와의 교역에서 무관세화가 완료되어 이때부터 교역 확대가 본격화됨.
- 2006년 NMS의 총 교역 규모는 7,779억 유로로 1995년의 약 4.4배에 달하며, 수출과 수입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1990년대 말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 중·동구 신규회원국 8개국의 교역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데이터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다. 고용 증대 및 FDI 유입 증가

■ 인구 및 경제규모가 가장 큰 폴란드<sup>4)</sup>의 최근 고용 및 실업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고용 상황이 악화되다가 2004년 EU 가입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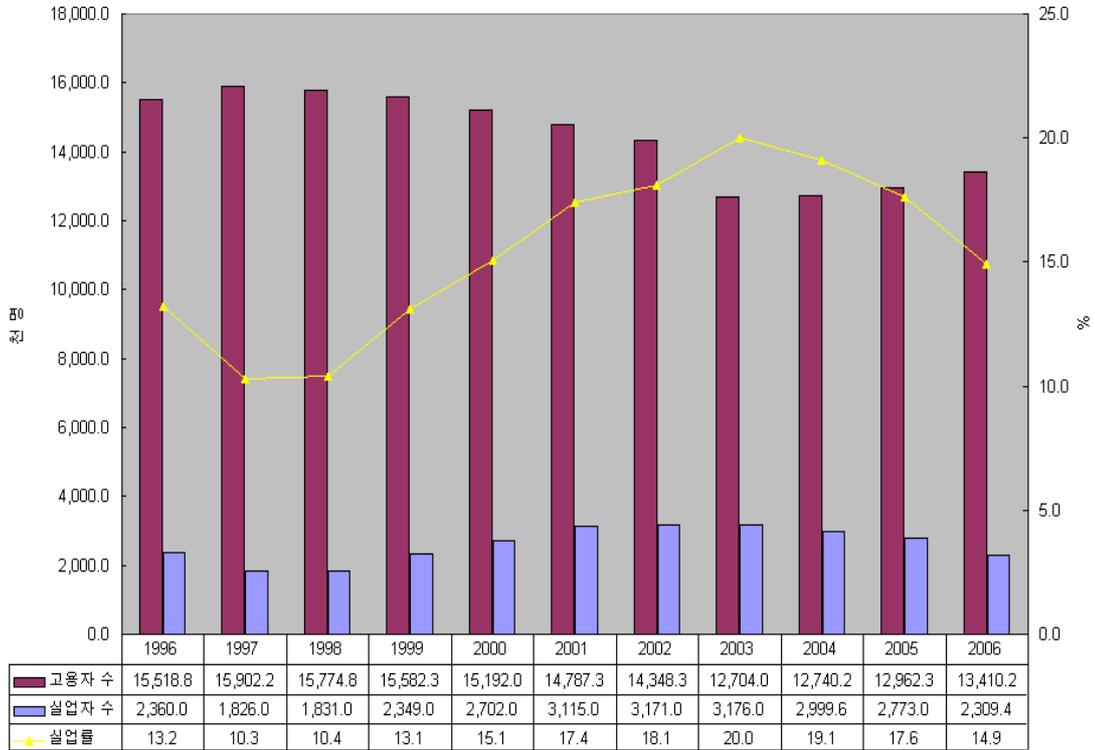
- 폴란드는 2000년대 초반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과 EU 가입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이 줄고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EU 가입 이후 고도 경제성장으로 상황이 급격히 호전됨.

- 최근 재정개혁 실패와 정치 불안으로 경제가 어려운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NMS 국가 대부분이 고용 및 실업 추이에서 폴란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4) 폴란드의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전체 NMS 인구의 50%를 초과하며, 폴란드의 경제규모도 NMS 전체 경제규모의 50%에 근접함.

그림 3. 폴란드의 고용 및 실업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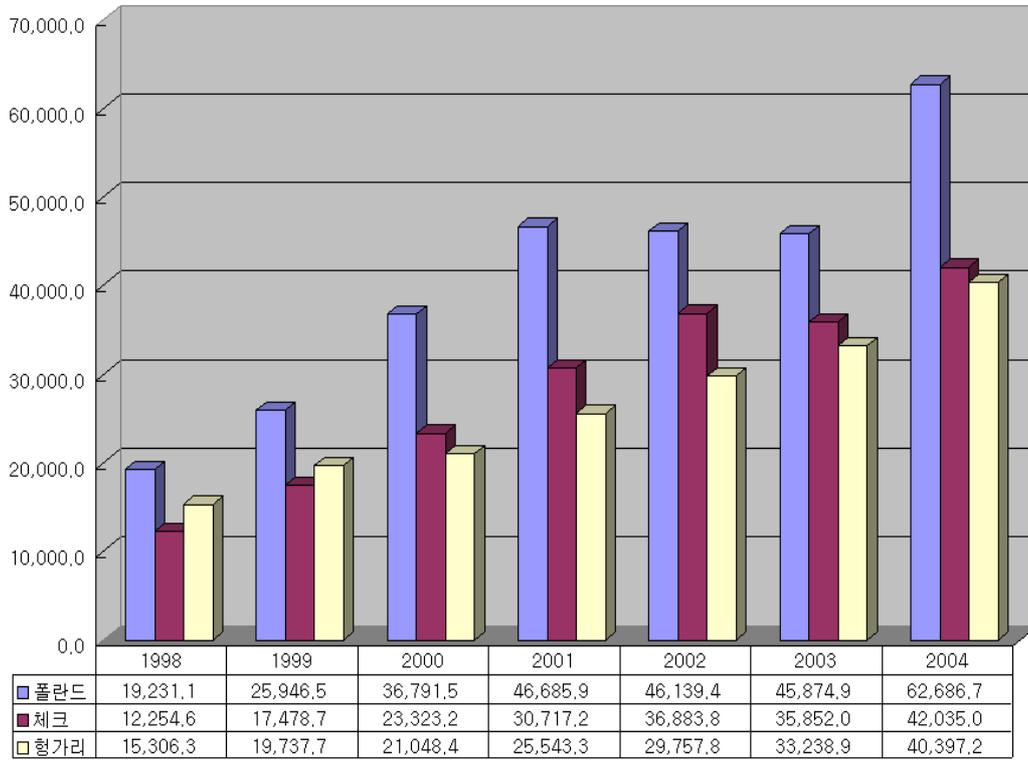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데이터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EU와 가입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교역 증대와 함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FDI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함.
- 1990년대 NMS에 유입된 FDI는 상당 부분이 민영화 기업의 인수였으나, 국영기업 민영화가 대부분 완료된 2000년 이후에는 재투자 및 그린필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
-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 주요 3국은 민영화가 대부분 완료된 2000년대 초반에는 FDI 유입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EU 가입이 이루어진 2004년에 FDI 유입이 다시 활성화됨.

그림 4. 중·동구 주요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주: 단위는 누적액 기준임.

자료: WIIW(2006), *Databas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entral, East and Southeast Europe*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 3. EU 가입의 경제적 성과

■ 체제전환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과정에서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이 적용되었음.

- 코펜하겐 기준은 크게 정치적 기준·경제적 기준·제도적 기준(EU 규범: Acquis Communautaire)<sup>5)</sup>의 세 가지로서 신규회원국이 EU 가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임.

5) EU 규범 기준은 31개 부문에 대해 분야별로 EU와 개별 후보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로운 상품이동, 인력이동, 서비스 및 자본 이동, 회사법, 경쟁정책, 농업, 어업, 운송, 조세, EMU, 통계, 사회정책 및 고용, 에너지, 산업, 중소기업, 과학 및 연구, 교육 및 훈련, 통신 및 정보기술, 문화 및 영상산업정책, 지역정책, 환경, 소비자 및 보건, 사법 및 내무 분야 협력, 관세동맹, 대외관계,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 금융통제, 재정 및 예산 규정, 각종 기구임.

- 중·동구의 후보국들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하고는 EU 측의 이러한 요구에 성실하게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중·동구 후보국들은 EU 가입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EU 측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광범위한 EU 규범의 시행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그 시행을 위한 행정 및 사법적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특히 체제전환국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속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정치적·경제적·제도적 측면에서 진행된 EU 가입 협상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이 EU 가입 준비과정에서부터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가. 경제적 수렴

- 체제전환 이후 EU 가입까지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시기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는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1995년까지이고, 2단계는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면서 각종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던 1996년 이후이며, 3단계는 가입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EU 체제로 전환되었던 2003년 이후임.<sup>6)</sup>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까지 체제전환 초기에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후퇴를 경험하였음.
- EU와 가입 협상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경제성장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체제전환기에 경제적 후퇴가 컸던 나라들의 회복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임.
- 이러한 추세는 2003년 이후 EU 가입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2007년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가입 협상이 본격화된 2003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함.

6)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은 2004년 5월에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협상이 종료된 것은 2002년 말임. 따라서 EU 가입과 관련하여 시기 구분을 하자면 2002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음.

표 2. 단계별 평균 GDP 성장률

(단위: %)

국명	체제전환 (1991~95년)	EU 가입 협상 (1996~2002년)	EU 체제 확립 (2003~05년)
체코	-0.8	1.7	4.6
에스토니아	-6.7	6.1	8.5
헝가리	-0.6	4.1	4.2
라트비아	-11.0	6.1	8.7
리투아니아	-9.9	5.3	8.4
폴란드	2.3	4.2	4.2
슬로바키아	-2.6	3.7	5.2
슬로베니아	-0.5	4.0	3.7
루마니아	-1.8	0.4	5.8
불가리아	-3.3	0.8	5.2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3. 단계별 평균 1인당 GDP

(단위: US 달러)

국명	체제전환 (1991~95년)	EU 가입 협상 (1996~2002년)	EU 체제 확립 (2003~05년)
체코	3,650	6,055	10,543
에스토니아	1,506	4,065	8,630
헝가리	3,766	4,918	9,780
라트비아	1,411	3,043	5,854
리투아니아	1,227	3,070	6,455
폴란드	2,518	4,486	6,728
슬로바키아	2,668	4,028	7,577
슬로베니아	6,258	8,894	15,905
루마니아	1,225	1,722	3,586
불가리아	1,250	1,572	3,049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함.

■ 경제 개방과 개혁 과정이 이후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음.

-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경제의 개방도가 높은 발트 3국과 슬로베니아의 경제성장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임.
- 두 번째 특징은 1990년대 초반 1인당 GDP가 유사했던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오늘날의 경제적 명암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이 그 후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임.

- 중·동구 신규회원국이 기존 회원국의 소득수준에 얼마나 빨리 수렴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신규회원국이 기존회원국에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침체로 인해 1990년대 중반까지 EU와의 경제력 차이가 오히려 확대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은 EU 경제에 대해 빠른 수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김홍중 외(2003)에 의하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결과로 중·동구 신규회원국 8개국이 비교적 빠른 수렴 추세를 보임.<sup>7)</sup>

## 나. 산업 및 무역 구조 변화

- 1990년 이후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요약하면, 탈농업화, 탈공업화, 그리고 3차산업화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EU 등 선진국 경제에서도 일어난 현상이었으나 신규회원국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었음.
- 농업부문을 살펴보면, 1990년과 비교하여 2001년 8개 중·동구 신규회원국에서 농업부문은 GDP와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신규회원국의 농업 비중은 EU의 농업 비중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총부가가치 기준과 고용 기준에서 보면 기존회원국과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차이는 신규회원국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여 EU 가입 이후 경쟁 압력이 상당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서비스업의 증가는 체제전환 이후 중·동구 국가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는데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체제전환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과 공업과 같은 급격한 체제전환의 충격이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였음.

7) 김홍중·이철원·박영근·박경석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에서 Barro and Sala-i-Martin(1995)의 성장방정식을 이용하여 중·동구 신규회원국이 1990년 이후 10여년 동안 서유럽 국가에 대해 경제성장의 수렴을 보였는지를 분석함.

- 공업부문도 체제전환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음.
  - 제조업, 광업, 건설, 수도·전기 부문의 생산액과 총부가가치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체제전환 초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5년에 와서야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 EU는 모든 신규회원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신규회원국들의 EU 교역의존도는 50%(리투아니아)에서부터 75%(헝가리)까지 이르고 있음.
  - Grubel-Lloyd 지수로 계산한 중·동구 국가들과 EU와의 산업내 교역 추이를 보면, 1995년 이후 산업내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체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에서 전체 교역의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교역 관계가 EU 중심으로 진행되는 동안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
  - 무역구조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초기에는 가장 숙련도가 낮은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였으나,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숙련도가 높은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구 5개국은 단순산업(low-tech)에서 첨단산업(high-tech)으로 무역구조 조정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동종 산업내에서 보다 첨단기술을 요하는 부문으로의 경쟁력 이전도 확인됨.<sup>8)</sup>

#### 다. 서비스산업 발전

- EU 가입 이후 NMS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임.

8) Dulleck, U., N. Foster, R. Stehrer, and J. Wörz(2003), "Are CEECs trapped in low-quality export specialization?" *Monthly report*, 2003/8-9, pp. 10-17, WIIW(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체제전환 이전 34.5%에 불과했던 폴란드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4%까지 확대되었으며,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도 37%에서 56%로 확대됨.
-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의 활성화로 최근 광공업 비중이 크게 확대된 체크의 경우에도 총고용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급격히 확대된 이후 최근 광공업 비중 확대의 여파로 다소 축소됨.
- 빠른 개혁과 개방으로 일찍부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NMS 국가들에 비해 높았던 헝가리도 GDP와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최근 눈에 띄게 확대됨.

**표 4. 폴란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8년	1996년	2004년	1989년	1999년	2004년
농림수산업	13.1	6.0	5.1	26.7	27.4	16.1
광공업	41.7	27.1	25.4	28.8	22.1	23.2
건설업	10.7	5.3	5.5	7.8	5.9	5.1
서비스업	34.5	61.6	64.0	36.7	44.6	55.6

자료: EIU

**표 5. 체크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7년	2001년	2005년	1996년	2000년	2004년
농림수산업	4.4	3.6	3.3	6.0	4.5	3.8
광공업	31.6	34.8	44.0	32.0	33.9	32.7
건설업	7.9	5.9	6.0	9.0	7.0	5.1
서비스업	21.6	55.7	46.7	53.1	54.7	57.1

자료: EIU

**표 6. 헝가리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6년	2000년	2004년	1996년	2000년	2004년
농림수산업	3.0	4.1	3.9	8.3	6.6	5.3
광공업	30.3	29.0	22.5	26.7	26.9	24.9
건설업	2.4	4.8	4.9	6.0	6.9	7.9
서비스업	64.3	62.1	68.7	59.0	59.6	61.9

자료: EIU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EU 가입을 계기로 NMS의 FDI 유입이 급증하였는데, 1990년대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FDI가 유입되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FDI 유입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곧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짐.
- WIIW 통계에 따르면 체코 서비스산업에 대한 FDI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누적액 기준 서비스산업 비중은 1997년 말 총 FDI 유입액의 37%에서 2004년 말 현재 50%까지 확대되었음.
- 연간 FDI 유입액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체코 FDI 유입액의 51%였던 서비스산업 비중이 2005년에는 80.5%에 달함.
- 누적액 기준으로 폴란드에 유입된 FDI 가운데 서비스산업 비중이 1996년 말 53%에서 2004년 말 현재 기준으로 56%까지 확대되었으며, 헝가리는 1998년 51%에서 2004년 52%로 소폭 확대됨.
- 서비스시장 자유화는 일반적으로 국내 및 외국인 서비스 공급업자의 참여 확대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술 도입을 통해 해당 서비스산업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체코의 서비스시장 개방임.<sup>9)</sup>
- Arnold, Javorcik, and Mattoo<sup>10)</sup>는 1998~2003년 체코의 기업 데이터를 사용, 체코 통신 시장 개방과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간 연관관계에 대해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시장의 외국기업 진입, 개혁의 진전, 서비스산업 민영화의 정도 등의 변수가 제조업 생산성과 통계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됨.
- 따라서 체코의 사례에서 서비스분야 자유화가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제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음.

9) 체코는 중·동구 국가 가운데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체제전환을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특히 통신 및 금융 부문의 민영화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음.

10) Arnold, Jens, Beata Javorcik, and Additya Mattoo(2006), "Does Services Liberalization Benefit Manufacturing Firms? - Evidence from the Czech Republic," World Bank.

## 4. 결론 및 시사점

- 신규회원국의 경제는 EU15 기존회원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임.
  - 신규회원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등도 점차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회원국들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과 경쟁력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향후 이들 후발 신규회원국의 경제도 앞선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이후 경제 변화 추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음.
- 여섯 차례에 걸친 EU의 경제통합 과정은 회원국들의 성장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경제자유화는 이 국가들의 경제 선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
  - EU의 확대 과정 중에서도 2004년 중·동구로의 확대는 경제성장 단계가 상당히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이었으며 이는 중진국이 선진국과 경제자유화를 할 때와 관련해 많은 경험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은 선진 EU 경제로의 전면적인 통합을 통해 ① 무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제고 ② 경제 체질의 개선 ③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정치·경제·사회적 수준 제고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EU 가입 과정에서 보여준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자유화 경험은 한국의 대외개방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의 EU 가입 경험은 이들이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단행하였다는 점과 FTA 체결국이 아닌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EU 가입 협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중·동구의 EU 가입은 중진국의 대외개방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
  - 가입 협상이 마무리된 2002년 말에는 선도적인 중진국 수준으로 시장개방과 시스템의 선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

- 첫째, EU 가입 협상에서 적용된 제도적 수렴 기준은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FTA가 포괄적인 FTA로 나아가야 당초 지향하는 경제자유화의 효과가 극대화됨을 보여줌.
  - 상품이동, 인력이동, 서비스, 경쟁정책, 농업, 운송, 통신, 환경 등 가입 협상에서 제기된 제도적 기준의 많은 부분은 포괄적 FTA 협상시 의제로 포함되고 있음.
  
- 둘째, 중·동구 신규회원국들이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매우 큰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경험함. 특히 가입 협상 과정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거대시장과의 시장접근성 강화와 투자제도 및 투자환경의 전반적 개선은 투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셋째, 체크의 서비스산업 자유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 개방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체크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서비스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연관 제조업의 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